

감사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

영생의 확신과 소망: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이 영생의 확신과 희망이 있다는 것은 영생의 불이 마음에 켜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희망과 소망이 있음으로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어려워도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만 벌면 행복한 줄 알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생의 확신과 소망만 가지면, 그 피가 썩으려야 썩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이루어지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영생의 확신과 소망의 불이 붙어있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기분이 좋고,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운 것입니다. 기왕이면 기쁘고 즐겁게 세상을 사는 게 좋지 이 세상을 고달프게 괴롭게 짜증나게 살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영생의 희망과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소망과 희망, 영생의 확신이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이며, 영생의 확신이 없는 자가 죄인이며, 마귀 종인 것입니다. 영생의 확신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과일이요,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확신이라는 건 마귀를 이겨야만 하는데 마귀는 바로 영생의 소망이 없는 마음, 영생의 확신이 없는 마음, "이러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번덕스런 마음, 이것이 바로 마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마음을 풀기만 풀면 피가 썩고, 썩은 피가 점점 많아지면 썩은 핏속에서 병균이 발생되고, 발생된 병균이 점점 번식을

해서 중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썩은 피가 점점 많아지면 앞에도 걸리지만, 성인병이 되는 고혈압, 동맥경화, 중풍, 당뇨병에 걸려 가지고 결국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이 영생의 비결

그러므로 피가 썩으면 죽는 것이요, 영생의 확신을 안 가지면 죽는 것입니다. 영생의 확신, 영생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 피가 썩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사는 비결이 바로 영생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시간 시간이 말씀드리지만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나라는 개체의식이 없어지면서 피를 썩게 하는 요소가 제거되고 영생할 수밖에 없는 몸으로, 영생할 수밖에 없는 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이기는 영이 영생을 하고, 마귀의 마음을 이기는 것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마음이 바로 마귀의 영이요, 마귀의 영이 곧 나라는 주체의식이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의 마음이요, 사망권을 잡은 사망의 영인고로 나라는 마음을 지워서 없애버리면 마귀를 이겼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기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것이요, 나를 이기는 것은 사망을 이기는 것이요, 나를 이기는 것은 생명의 과일을 먹는 것이요, 영원무궁토록 사는 생명을 쟁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늘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게 돼

여러분들, 이 사람이 매를 맞아도 감사, 누구한테 욕을 먹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공연히 감사



구세주 조희성님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 서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 고소하고, 나를 욕하는 것이 고소하고, 나를 때리는 것이 고소하고 통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수 없고, "저 사람이 나를 왜 때릴까?" "저 사람이 왜 나를 욕 할까?" 하고 도리어 반발하고 화를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반발을 하게 되면 바로 마귀 편에 섰다가 되는고로 마귀한테 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반대 생활을 했다고 여러분들한테 시간 시간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반대 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내 입장에서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되는 나라는 것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제 마귀를 미워한다가 되고고로 자신을 미워하게 되면 바로 자신을 짓밟고 자신 위에 하나님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그러므로 반대 생활을 그냥 특별나게 가끔가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까지도 반대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장교 계급장을 붙였으니 대장 노릇을 해야 할 신분인데 밤이면 밤마다 쫓병들도 하기 싫어하는 똥내 나는

화장실 청소를 했고, 힘든 일을 밤중에 나가서 몰래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짓이기고 자신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는 생활을 숨어서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면 도리어 감사하고, 이 사람을 향해서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리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을 미워하고 눈 흘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30년을 미워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30년간을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좋아하니까 그 마귀가 녹아져 가지고 30년 동안 미워하던 그 친구가 나중에는 "이 세상에는 조희성 같은 사람이 없다. 이 세상에는 조희성처럼 선한 사람이 없다. 조희성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귀가 쳐서 앞 뒷발을 다 들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제단에 나오려면 가족과 식구들이 핍박을 하고, 미워하면서 승리제단 못 가게 방해하는 데, 그럴 때에 가족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처음에는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지만 오랫동안 계속해서 좋아하고 사랑하면, 결국은 용광로에 찻머리를 넣은 것처럼 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광로와 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영은 사랑의 용광로 인고로 그 어떠한 무쇠와 같은 돌덩어리라도 그 용광로에 들어오면 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91년 10월 29일 말씀 중에서
원현욱 기자 정리

두 사람

참 사람이 되려면 옛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옛 사람이 되는 '나' 라는 것이 완전히 죽어 없어져서 새 사람인 '하나님인 나' 가 내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이지, 이제 옛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나라는 주체의식을 사랑해서는 도통이 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생활, 나를 짓이기는 생활, 반대 생활을 해야 도통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 라는 실체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나' 라는 실체가 바로 죽는

걸 원치 않는 우리 조상을 대대로 죽인 장본인인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미워하면서 쾌감을 가지고 기뻐하고 웃으세요. 웃음은 하나님이 웃는 거지, 인간이 웃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늘의 사람은 마귀가 죽으니까 통쾌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사람 속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생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욕심에 의한 사람은 마귀의 사람인 것입니다.*

2001년 6월 말씀 중에서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유전학적 내세관

조상들의 내세가 곧 나의 삶이자, 내 몸이 그 터전이다. 이와 같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만한 사상은 이미 동학 2대 교주 해월(海月) 최시형 선생의 향아설위(向我設位)사상에도 있다.

향아설위란 벽에다 갖다뒀던 땃밥(젓밥)을 번쩍 들어서 제사 지내는 나, 즉 살아계신 한울님(하나님, 부처님)인 사람 앞에 되돌려 놓는 혁명적 제사법이었다. 향아설위는 오랜 세월동안 동서고금의 제사에 있어서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관례를 뒤집어 엮은 것이다. 마치 폭포수에서 떨어진 물이 거꾸로 올라간다는 사실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벽에다 땃밥을 떠놓는 제사양식을 내 앞에 갖다놓는다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생각이었다. 이는 천지가 무너질 듯한 개벽의 시작을 알리는 대사건이었다. 위대한 혁명가이자 사상가인 최시형은, 한울님은 나와는 분리된 벽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살아 있는 주체 즉 행위의 주체, 생명의 주체인 내 쪽에 살아계신 한울님 또는 조상의 영이 거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식사가 곧 조상님의 식사요, 제사다. 조상의 훌륭한 혈통과 업적을 진정 드러내고자 한다면, 현재 살아 있는 나의 삶의 표상(表象)과 귀천(貴賤)에 따라 평가되어짐을 알아야 한다.

초월적 내세관은 그럴 듯한 거짓말

이승에서의 삶을 떠나 또 다른 세계로 간다는 발상은 죽음에 대하여 풀지 못한 숙제를 영원히 죽을 저 너머의 세계로 떠넘기고자 한 인류 최대의 사기극이었다. 과거 인류가 무지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나 통하는 얘가지 지금같이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의식이 크게 팽목할 만한 성장의 시대에는 안 통한다. 그야말로 초월적 내세를 믿게 하는 종교나 국가는 민중의 아편이요 인류의 이적행위인 것이다. 여전히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기는 커녕 더욱더 교활하게 과대포장해서 사람을 현혹하는 짓은 이제는 그만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인류의 발전과 성장

인류가 지향할 내세관: 피의 원리적 내세관

죽은 조상을 딴 데서 찾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내 속에서



죽은 조상은 살아 있는 후손 속에 있다. 제사 음식을 조상의 영이 와서 먹는다면 음식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를 볼 때 조상의 영은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을 방해하는 인류의 공공의 적으로 처벌될 것이다.

오늘날 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젊은 청년들이 종교를 배척하고 흥물 스러워하는가 하면 바로 이처럼 허황되고 거짓된 종교의 논리를 끝까지 집착하기 때문이다. 수천 년 동안 여러

석은 사람들을 속여 자기 잇속을 챙겨 먹었으면 그걸로 죽하지 아직도 그 사기극을 고집한다는 것은 인류에게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통감해야 하겠다.

행여 사람이 죽어서 간다는 그 세계가 과연 존재하는가? 이 문제에 골몰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독일의 의학자 캠프너 박사의 죽음 이후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따로 떠나가는지의 여부에 대해 밝힌 다음과 같은 사실에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

- 인간은 죽으면 물질로서 소멸될 뿐이며 아무런 것도 남기지 않는다. 나는 죽음 가까워진 환자들을 100만 분의 1의 미세한 파동까지 기록할 수 있는 특수 장치 속에서 8,000명의 죽음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그리하여 죽은 직전 혹은 직후에 시체에서 빠져 나가리라는 영혼(혹은 엑토플라즈)의 사실여부를 측정하였으나 체내 가스 외에 아무 것도 나가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죽은 후 간다는 초월적 내세 따위는 없다. 사망 직후부터 육신의 온기는 식으며, 피의 흐름은 멈추고, 몸은 뻣뻣하게 굳어져 결국에는 피도 썩고 살도 썩고 뼈까지 영혼까지 썩어 흩어 되어 버린다는 엄연한 사실.

피의 원리적 내세관은 인류가 지향할 당면지사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피의 원리적 내세관은 대단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인간의 영·육간에 크게 발전과 성장을 도모시키는 이상적인 내세관이라 하겠다. 모든 문제를 이 세계 내에서 내 안에서 해결해내려는 문제해결 의식은 곧 인류의 모든 문제, 즉 죽음까지도 극복해 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인간과 동떨어져 죽어서 어디 존재한다는 '천국' 혹은 '지옥'은 없다. 천국과 지옥은 오직 살아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을 뿐이다. 이 순간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품으면 이곳이 곧 '천국'이요, 이 순간 괴롭고 고통 속에 불행한 마음을 품고 산다면 이곳이 바로 '산 지옥'인 것이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 그것은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다.*

김주호 기자